

2007년 중국경제전망 -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방혜정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2006년 지난 한 해 중국의 대외무역규모는 1조 7,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1,774억 7,000만 달러에 이르고, 외환보유액은 1조 663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30.22% 늘어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성장했다.¹⁾ 4년 연속 10%²⁾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양호하고 빠르(又好又快)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힘입어 2007년 을 해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 2.5% 수준의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며 9.5%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도한 투자 및 신용대출의 증가, 무역수지불균형 및 에너지자원 문제와 환경오염의 지속악화 현상 등 경제발전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정책 조정 및 개선을 통해 꾸준히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경제수익의 증가,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발전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2007년에도 중국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투자 회복세와 국제수지 불균형, 농민수익 확대 및 소비진작, 에너지 소비 등 국가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경제구조 개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은 또한 중국공산당 제17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 중국 최고 국가기관)의 첫해로 '과학발전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실현의 중요한 한 해로서, 중국 경제는 "지속적 · 안정적 · 비교적 빠른 속도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1) "신화사가 전망한 2007 中 주요경제지표", 2007. 01. 05, "中, 대외무역5년연속증가율20%돌파", 2007년 1월 17일, 매일경제신문

2) 2003년 10%, 2004년 10.1%, 2005년 10.2%, 2006년 10.5%, "2007년 중국경제발전 10대추세", 중국경제신문왕

■ 경제발전 중 심각한 사회문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근, 중국 상무부는 2010년까지 법제완비, 체제완성, 조화로운 발전, 질서규범 확립, 경제구조의 합리화, 경제운용 방식의 선진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현대적 시장경제시스템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³⁾ 고속성장과 시장경제화는 중국사회의 과도 저축으로 인한 과잉투자 문제와 잉여생산의 문제 및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져오는 분배의 문제를 심화시켜,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압력을 주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구조적 문제를 완화시키며, 특히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문제 중 중점문제로 삼고, 적극적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6년 중국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중요한 해로서, <(2006~2010년) 노동 및 사회보장사업발전 “십일오” 계획요강(이하 십일오)>⁴⁾에 맞추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의 취업기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직업훈련과 취업보조 등 각종 형태의 정책을 통해 구직을 도우며, 중앙·지방·대학·기업 등 다방면의 적극적 노력을 이끌고 홍보활동을 벌여, 전체 사회가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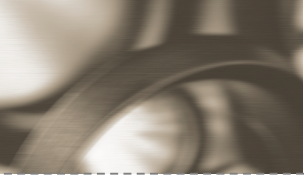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2006년 중국은 고용창출정책으로 전국 도시에서 1,184만 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재취업자 또한 505만 명에 이르며, 그 중 40~50세 이상의 재취업자가 120만 명에 이르러, 2006년도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실업률 조절에도 효과를 거두어, 전국 도시에 등록된 실업률이 여전히 2005년 말 수준의 4.1%에 머무르고 있다⁵⁾. 2006년의 GDP 성장률⁶⁾은 대략 100만 명의 고용창출

3) “法制健全, 体制完善, 发展协调, 秩序规范, 结构合理, 方式先进, 组织化程度较高的现代市场体系”, 중국재경왕, 2007년 1월 19일.

4) 노동보장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한 노동 및 사회보장사업발전 5개년 계획으로, 취업확대, 근로자 수준 향상, 사회보장제 완비, 노사관계 안정유지, 노동보장법제 완성 등을 그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

5) “2006년노동보장사업신발전”, 노동보장부반공청 2007년 1월 19일.

6) 국내총생산이 20조 9,407억 원(인민폐)로 전년대비 10.7% 증가, “중국 작년 GDP 20.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 국가통계국, 2007년 1월 25일.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취업에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국무원이 최초 비준한 노동보장부의 ‘십일오’ 계획 중의 취업 방안을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10년 5월까지 전국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 4,500만 개 창출, 도시등록실업률을 5% 이내로 억제, 농촌출신 노동력 4,500만 명, 전국기술직노동자 1.1억 명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에도 잉여노동총량과 구조성 단기실업의 현상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보여 취업난은 여전 하리라 예상된다. 2007년 전국도시취업희망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이 중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390만 명, 금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초·중·고 졸업생 210만 명, 전역군인 50만여 명, 농촌 인력 26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화 공업화 추세와 더불어 대량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비농업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하여, 도시로 이동하는 규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고용문제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새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약 1,000만 개 정도로 예상되며, 재취업자는 약 200만 명, 도시실업자의 총수는 증가하여, 등록실업률이 4.6%에 이를 전망이다.

■ 중국이 직면한 고용문제

-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기본 구조가 장기간 지속 -

중국의 16~59세까지의 노동인구는 2015년에 8.67억 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며, 2015년까지 전국노동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이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진입이 대폭 증가하여, 2005년의 4억 명에서 2015년에는 5.3억 명에 이르러, 매년 평균 1,300만 명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노동인구는 2005년의 4.4억 명에서 2015년 3.4억 명으로 감소될 것이며, 연평균 1,100만 명 정도의 감소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노동참여율과 현존하는 도시 실업인구 800만여 명을 고려해 보면, 2015년까지 매년 도시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2,400만여 개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7% 이상 유지되는 경우 취업탄성계수를 0.13으로 보고, 적극적 고용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는 전제하에서, 2015년까지 매년 새로이 증가하는 일자리수는 900만 개, 퇴직으로 인한 일자리가 300만 개 정도, 도시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차는 1,200만 개 정도로 도시실업률은 대략 5%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취업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

구직인구의 누적 증가와 더불어 취업구조의 문제가 더욱 드러나면서 서서히 고용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취업구조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산둥 등의 동부 지역과는 달리, 중서부 지역, 광산자원이 고갈된 도시, 사양산업이 주로 분포된 공업지대 및 기간산업과 신기술 산업의 입지가 부족한 현 단위 지역경제는 새로운 고용창출이 힘들어 고용문제가 시종일관 중점적 경제문제로 자리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동시에, 점점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추세이다. 2007년 1월 25일 인사부가 발표한 “2006년 4사분기 일부 인재시장 공급수요정보”를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구인 및 구직수가 3사분기 대비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각각 전국총수의 67.6%와 70.2%를 차지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기술력에 따른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문제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신흥산업과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은 공급이 수요를 훨씬 밑돌고, 현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하여, 이미 경제발전과 산업 구조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구직자들이 비교적 기술수준이 낮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거나 적응력이 부족하여 취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교육수준별 산업별 불균형 문제도 심화하여, 공공부문과 일부 독점산업 분야의 취업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극심한 반면, 많은 중소기업과 민영 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인이 힘든 경우가 많지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도시와 농촌의 취업구조문제 또한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농촌의 잉여노동력 규모는 1.5억 명 정도로 이들의 전업 정책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구조의 편차 또한 취업에 심각한 장애요소이다. 3차산업은 취업 확대의 주요 목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중국의 3차산업 종사자는 선진국의 75% 수준에 훨씬 밑도는 실정이며, 개도국 평균 40%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⁷⁾

7) 중국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개도국의 평균 수준인 5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신문, 2007년 1월 15일).

〈표 1〉 기술능력에 따른 노동력 공급 및 수요

기술 등급	노동력 공급 및 수요 비교										
	수요 인원 (人)	수요 비율 (%)	전분기 비교 수요 변화 (백분율)	전년 동기대비 수요 변화 (백분율)	구직 인원 (人)	구직 비율 (%)	전분기 비교 구직 변화 (백분율)	전년 동기대비 구직 변화 (백분율)	구인 증가	전분기 비교 공급 변화	전년 동기 대비 공급 변화
직업자격5급(초급)	746,863	18.5	-1.6	-2.1	814,602	19.4	-1.9	+1.4	1,34	-0.03	-0.22
직업자격4급(중급)	482,241	11.9	+1.3	+1.3	438,436	10.4	+1.0	+1.5	1,52	-0.02	-0.09
직업자격3급(고급)	159,546	4.0	+0.4	-	124,990	3.0	+0.2	+0.6	1,7	-0.01	-0.36
직업자격2급(기사)	93,565	2.3	+0.3	+0.3	57,197	1.4	-0.3	-0.1	2,06	+0.47	+0.36
직업자격1급(고급기사)	32,168	0.8	-0.1	-0.2	21,687	0.5	-0.1	-0.2	1,91	-0.05	+0.03
초급전문기술직무(기술원)	471,457	11.7	+2.1	+2.0	459,160	10.9	+1.3	-0.2	1,45	+0.03	+0.15
중급전문기술직무(공정사)	239,826	5.9	+0.7	+0.9	201,463	4.8	+0.4	+0.1	1,61	+0.02	+0.14
고급전문기술직무(고급공정사)	38,344	1.0	-	-0.1	18,314	0.4	-0.2	-0.2	2,52	+0.44	+0.43
무기술등급	/	/	/	-0.9	2,073,348	49.3	-0.6	-2.8	/	/	/
기술요구 없음	1,776,094	44.0	-3.2	-2.1	/	/	/	/	/	/	/
전 체	4,040,104	100	/	/	4,209,197	100	/	/	/	/	/

자료 : 중국노동시장정보왕감측센터, 「2006년 3사분기일부도시노동시장공급수요상황분석」.

〈표 2〉 교육수준에 따른 기업별 취업구조

(단위 : %)

	중앙 국유 기업	지방 국유 기업	집체* 기업	자영	민영 기업	외자 합자 기업	기관 단체	비영리	기타
무학	3.5	8.5	9.2	41.9	7.3	1.4	2.4	7.8	17.8
초졸	4.6	12.5	9.6	43.4	9.4	1.3	2.0	5.0	12.1
중졸	7.7	22.0	10.5	31.6	11.4	2.4	2.2	5.9	6.2
고졸	10.8	25.0	10.2	20.7	11.2	3.6	4.4	10.0	4.3
직업학교졸	9.2	24.4	8.9	18.8	20.7	8.9	2.0	4.5	2.6
기술고졸	24.9	36.6	5.6	10.8	9.8	4.6	1.0	4.6	2.1
전문기술고졸	13.5	22.8	7.5	10.7	11.4	4.6	6.0	21.3	2.2
고급직업학교졸	8.2	28.1	8.2	15.1	13.0	4.8	5.5	14.4	2.7
전문대졸	13.4	21.5	5.4	5.4	9.4	4.5	13.1	25.2	2.1
대졸이상	13.5	15.6	2.5	2.4	7.4	6.1	14.3	36.8	1.4

* 기업의 소유권은 일부 근로자집단에, 경영, 분배 등은 보통 지역행정단위에서 결정하는 기업의 형태로, 80년대 중반 이후 주식제 등 여러 형태로 소유제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다.

자료 : 중국노동사회보장부출판사, 「교육수준과 취업의 관계」, 『2005년: 중국취업보고-도시농촌취업총괄』(제8장), 2005년 6월.

■ 해결하기 힘든 실업문제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정부는 전체실업률 억제를 취업문제의 주요 부분으로 다루어 왔다. 마찰성 실업, 주기성 실업, 장기성 실업, 계절성 실업, 구조성 실업의 문제는 현저히 대두되어, 도시에 등록된 실업률과 조사자료에 의한 실업률 모두가 증가 추세이며, 훨씬 심각한 문제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이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재취업의 어려움은 실업 주기를 연장시켜, 장기실업의 비중이 높아져 구조적 실업을 양산해 내고, 구조적 실업은 단순히 경제발전과 고용기회 확대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실업인구의 기술향상이 뒤따라야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근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하다. 도시에서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신규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문제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초급 기능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학력이 낮고 직장 경험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일부는 실업 상태에, 일부는 심지어 노동시장에서 낙오되어 심각한 인력자원의 손실과 함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05년 전문대 이상 졸업생은 413만 명이며, “십일오” 시기에는 매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수요 간의 부조화는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지속시키고 있다.

사회저소득층의 취업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십일오” 시기 국유기업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인원이 200여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중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은 이전부터 생활의 곤란을 겪어 온 근로자이며, 연령대가 높고 단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재취업이 어렵다. 2006년~2008년의 3년간 국유기업의 폐쇄와 파산은 지속되어 34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며, 각종 신정책의 범위 내에 있는 집체기업에서 퇴직할 인원도 대략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최저생활보장제도 수혜 대상군 중 노동가능인력은 대략 1,100만 명으로 이들도 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영유하고 싶어한다.

또한 경작지를 잃은 농민 중 일부도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이미 4,000만 여명의 농민이 경작지를 상실하였고 앞으로 경작지를 잃은 농민의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60%정도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400만 명이 도시에서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는 여전히 실업상태이



며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도시생활에 알맞은 지식과 기술의 부족하며, 만일 이들이 안정적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 고용 안정성 감소

세계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와 시장감독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십일오” 시기 취업의 안정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공부문과 독점산업 분야의 여러 부문들 중 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기 어렵고, 정규부문의 고용확대 기회도 감소할 것이다. 민영부문에서는 감독과 집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보장성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감소하고, 체불임금, 시간외근무, 사회복지혜택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노사관계의 불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 분야에 적합하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정책과 법규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취업자들의 사회보장 및 권리확보 등이 어렵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 21개 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도시 비정규직은 전체의 30%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0만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은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와 도시의 신생 노동력이며, 일부는 실업자들이다. 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들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심각한 노년층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 : 농민공, 대학생취업, 재취업을 중점 대상으로

중국정부는 이미 중공 16대 6기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관련한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총체적 목표를 명시하고, “사회의 완전 고용”을 9가지 전체 실천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취업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지원 사업을 펼칠 것을 표명했다.

2006년 국무원은 「농민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농민공 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 이념과 기본원칙 및 정책 실시를 명시하여, 실지 농민들의 취업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춘

풍활동을 통해 농촌인력에 대한 도시취업 제한정책을 없애고, 농민공에게 무료직업안내서비스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보장부는 2006년 도농근로자들에게 “5+1” 행동계획⁸⁾을 실시하여, 실제로 새로 증가한 기사와 고급 기사의 수가 28만 명에 이르러, 2004년에서 2006년 3년동안 59만 명을 배출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였다.⁹⁾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한 지원과 각 시, 현, 구, 지역 단위에 공공취업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재취업희망자들과 농민공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2007년 1월 23일 국무원은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통해, 농민공에 대한 공평대우, 사회보장정책 개선, 전면적 계획과 실행, 각 문제별 중점 해결, 장기적 계획 등의 기본원칙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이어 26일 노동보장부는 “2007년 농민공을 위한 10대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농민공의 취업, 사회보장, 직업훈련, 자녀교육 및 산아제한정책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을 실시하기로 공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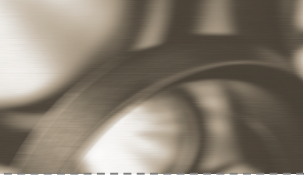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보장부는 고용창출에 기여한 민영기업을 표창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인턴제도 등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2007년 1월 졸업 이전의 취업준비보조 및 공공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실업졸업생들의 자문과 훈련기회 제공, 중서부 지역의 졸업생들의 중점지원, 교육부·인사부와 각 학교에 시장분석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취업지원을 위한 4대조치”를 발표하였다.

국무원은 2007년 취업사업과 관련, “95146” 목표(매년 도시취업대기자 증가인원 900만 명, 국유기업 실직자 재취업 500만 명, 그 중 빈곤층 취업대상 재취업 100만 명, 도시에 실제 등록된 실업률 4.6% 이하로 억제)를 확정하였으며,¹⁰⁾ “재취업지원의 달”, “춘풍활동”, “민영기업취업주간”, “전문대졸 이상 취업주간” 등의 취업전문지원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려 한다.

8) “신기사배양계획(5년간 전국 기사 및 고급 기사 190만 명 배출, 700만 고급기술공 배출)”, “창업지원계획(5년간 200만 도농근로자에게 창업지원교육)”, “실업자재취업계획(5년간 2,000만 실업자들에게 직업기술교육)”, “농촌노동력기술직업계획(5년간 4,000만 도시진출 농촌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직업기술유도교육(5년간 5,000만 근로자기술편가)”, “직무에 맞는 직무기능 배양교육”.

9) “2006년 노동보장사업실현신발전”, 노동보장부반공청, 2007년 1월 19일.

10) “장소건 노동보장부 부부장 2007년 공공부문 취업을 위한 전담활동을 통해 정책잠재력을 발굴하고 업무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노동사회보장보』, 2006년 12월 31일.



“재취업지원의 달” 활동은 2007년 신정 연휴부터 구정 연휴까지 한 달간 전개되며, “취업실현, 안정적 취업을 위해 진정으로 함께 조력하자”는 모토 아래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현재 미취업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전원 완전실업가정의 구성원, 이미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고용창출성 공공근로직에 종사하거나 기업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사회보험보조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 각 지역이 정한 기타 주요 지원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춘풍활동”은 2007년 구정부터 3월말까지 전개되며, “도시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는 모토 아래 진행된다. 이 활동 대상자는 외지에서 근무할 준비 단계의 근로자, 새로 도시로 들어온 근로자와 이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촌출신 근로자들이다. 이외에도 노동보장부는 공안, 공상, 인사 등의 관련부서 등과 연계하여 이 시기에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민영기업고용주간” 활동은 노동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노동조합)와 전국공상연(사용자 단체) 공동으로 주최되며,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이 활동은 민영기업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100개의 중점 연계도시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출신 도시근로자들이 민영기업 내에서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확실히 지원하고자 한다.

“전문대 및 기술학교졸업생취업주간” 활동은 2007년 9월 실시된다. 이 활동은 “취업은 우리 공통의 노력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활동 대상은 이미 실업이 등록된 전문대 및 기술학교 졸업생들로, 각 지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생계곤란 가정, 편부모 가정과 완전실업 가정 구성원 중 실업이 등록된 전문대 및 기술학교 졸업생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중국노동보장부는 2007년 취업촉진업무를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함께 핵심업무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방법 혁신과 정책개발을 통해 취업 및 재취업촉진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일년업무계획 기획과 총체적 업무배치, 목표책임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평가를 실시, 사업의 질을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지방정부의 일년업무목표와 임무를 보고받고 적절한 재정을 안배하여, 각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홍보활동에 더 힘을 기울이며, 근로환경 개선과 “취업, 교육, 노동권 보호”의 삼위일체를 실현하는 제도 확립을 목표로,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중국사회는 이미 취업, 교육, 사회보장, 노사관계, 분배의 문제 및 도농간의 총괄적 전면적 발전 조정 문제 등의 고려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도농간의 발전 차이 및 소득 격

차를 극복하며, 경제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중국경제의 쾌속 질주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이 시기에, 중국정부의 「농촌경제시장화를 위한 십일오 계획」과 「국내무역 발전을 위한 십일오 계획」 등은 모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고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 개선노력과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증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KL**

참고문헌

- 중국노동력시장정보왕감측센터, “취업교육의 실시 및 완전고용의 목표를 실현”(实施素质就业实现社会就业比较充分的目标), 노동보장부노동과학연구소 모용, (劳动保障部劳动科学研究所 莫荣), 2007.01.11, http://www.lm.gov.cn/gb/news/2007-01/11/content_158376.htm
- 중국경제시보, “2007년 중국경제발전10대추세”(2007年中国经济发展十大势), 2007. 01. 09, http://www.cesnew.com/html/fxpl/01091031512660_2.html
- 중국재정왕, “2010년 중국은 완전한 현대적 시장경제시스템을 건설”(2010年我国将建成较完善的现代市场体系), 2007. 01. 09, <http://www.fec.com.cn/hotspot/hotspot.php3?id=3424&elanmu=hotspot>
- 국가정보센터경제예측부, “2007년중국경제발전전망과 거시조정정책방향”(2007年中国经济展望与宏观调控政策取向), 범검평(范剑平), http://www.labournews.com.cn/newscent_play.asp?news_no=138630
- “노동보장부: 대학생취업보장을 위한 4대조치”(劳动保障部: 四大举措保大学生就业), 광명일보(光明日报), 2007.01.08, <http://www.labournews.com.cn/dbzb/dbzg/zxbd/5854.shtml>
-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부, “양호하고 빠른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4대조치”(四大措施促经济“又好又快”发展), 2007.01.12, <http://www.chinado.cn/ReadNews.asp?NewsID=810>
- “구정 전후 전국 춘풍활동 등 활동전개”(春节前后我国将继续开展“春风行动”等活动), 유양양(刘阳阳), 신화왕, 2007.01.04, http://www.labournews.com.cn/newscent_play.asp?news_no=138630